‘우리 모두의 연등회’ 대단원 막 오른다

4월 12일 서울 광화문광장 점등식으로 개막

불기 2561(2017)년 부처님오신날을 기념하는 국가중요무형문화재 제122호 연등회가 불자뿐만 아닌 모든 시민을 위한 행사로 다가간다.

올해는 특히 ‘차별 없는 세상, 우리가 주인공’이라는 주제 아래 다양한 힐링체험과 형형색색의 등(燈)으로 화합 분위기 조성에 힘을 싣는다.

올해 연등회는 4월 12일 오후 7시 서울 광화문광장 점등식을 시작으로 대단원의 막이 오른다. 점등식에는 국보 제11호이자 한국 석탑 최대 걸작으로 일컬어지는 미륵사지석탑을 원형으로 삼은 탑등이 설치된다.

이 탑등은 지난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실종자들의 무사귀환을 기원하며 불을 밝힌 바 있다. 따라서 이번에는 세월호가 3년 만에 뭍으로 올라오고, 대통령 탄핵정국을 보낸 대한민국의 현 상황에 맞춰 모두가 고귀한 존재라는 부처님 가르침을 바탕으로 한 대국민 화합이라는 의의가 담길 예정이다. 아울러 탑등 사방에 사물등(법고 · 범종 · 운판 · 목어)이 세워져 광화문 일대를 더욱 환히 밝히게 된다.

연등회 본행사인 어울림마당과 연등행렬, 회향한마당, 전통문화마당은 28~30일 펼쳐진다. 29일 오후 4시 30분 동국대 운동장서 시작되는 어울림마당에는 40여 단체 1000여 명의 연희단이 율동공연으로 축제 분위기를 한껏 돋우고, 아기부처님 관욕을 통해 부처님이 중생의 성불을 돕고자 진리를 설한 대자대비를 되새긴다. 또한 예년과는 달리 가설관람석을 대거 설치해 행사 집중성과 연희단 프로그램을 강화했다.

이어 진행되는 연등회 백미 연등행렬은 동대문부터 종로 일대를 10만개의 행렬등

‘차별 없는 세상’ 주제로
28~30일 종로구 일대서
어울림마당 · 연등행렬 등
시민과 화합의 장 연출

과 장엄등으로 수놓는다. 올해 테마등은 사물등이지만 이보다 초등학생을 포함한 가족들이 함께 만든 현대적 장엄등이 눈길을 끌 것으로 보인다. SNS에 사용되는 이모티콘 캐릭터등을 비롯해 복주머니, 버선, 탑 등 세대전승과 가족공동체 정신을 높이는 창작등이 다수 등장한다. 또 행렬을 맞이하는 관람객에게는 기다리는 동안 27개국 80여 명으로 구성된 글로벌 서포터즈와 함께 배우는 연등회 율동 시간도 진행된다.



2017 봉축표어포스터

같은 날 오후 9시 30분 종각사거리서 연등회를 기념하고 피날레를 장식하는 회향한마당은 민요와 강강술래, 대중율동곡 등으로 대동제를 연출한다.

30일 조계사 앞 우정국로서는 130여 부스가 참여하는 전통문화마당이 열린다. 올해 눈길을 끄는 프로그램은 정목 스님의 토크콘서트. 마음의 상처를 입은 이들과의 대화를 통해 서로 공감하고, 삶의 희망을 찾아가는 시간이 제공된다. 이외에 참선 · 명상 · 심리상담 등 다양한 방식의 힐링체험 부스가 운영되며, 애니메이션 · 컬리링 · 미니게임 등 청년마당 또한 강화된다. 특히 7개 사찰이 제각기 다른 메뉴를 선보이는 사찰음식코너는 최근 건강한 먹을거리를 찾는 이들에게 좋은 안내가 될 전망이다. 연등회는 이날 저녁 인사동과 종로 일대서 다시 한 번 소규모 연등행렬을 펼친 뒤 막을 내린다.

한편 4월 28일부터 5월 7일까지 조계사 옆 우정공원과 청계천, 봉은사 등서 펼쳐지는 전통등전시회는 서울 도심을 전통과 낭만의 빛으로 물들인다. 청계천서는 ‘염천(念天), 흐르는 물에서 하늘을 생각하다’라는 주제로, 험한 세파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희망의 불빛이 끝내 절망을 이겨내고 비상하는 모습을 표현한다. 아울러 봉은사서는 ‘화동세중(和同世中)’을 주제로 가족 화합을 도모하고 모두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전통등을 전시한다.

연등회 보존위원회 사무국장 대안 스님은 “많은 분들이 연등회를 단순히 불교행사라고 느낀다. 하지만 연등회는 과거부터 이어져온 국가행사인데다 모든 사람들이 함께 즐기는 축제였다”며 “너와 내가 결코 다르지 않다는 평등의식을 바탕으로 민족 풍습인 연등회에 국민 모두가 참여해 화합의 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윤호섭 기자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광화문광장을 밝힌 미륵사지석탑등

책 한권에 成佛 인연을

불교인권위, 동화책 · 경전 보내기

불교인권위원회(위원장 진관) 등은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도서벽지 어린이에게 동화책 보내기 및 전국 교도소 양심수에게 경전 보내기 운동을 펼친다. 불교인권위는 4월 4일 조계사불교대학 4층 교육장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날부터 어린이 동화책 및 불서 모연에 나선다고 밝혔다.〈사진 아래〉 도서벽지 초등학교 및 전국 구치소, 교도소의 양심수들에게 보내기 위함이다.

불교인권위는 “교도소에서 불서를 읽는 것은 자유가 통제된 수감생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라면서 “수많은 양심수들은 수감생활 동안 자신을 성찰하고 마음을 치유하며 재충전의 기회로 삼는다. 그래서 이번 운동이 그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지혜의 등불이며, 새 세상으로 인도하는 감로의 샘이 되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어린이 동화책 및 불서를 보내기 희망하는 자는 불교인권위원회 앞으로 부처님오신날 전까지 보내면 된다.

이번 동화책 및 경전 보내기 운동엔 무진장불교문화연구원, (사)경허연구소, 한국불교종단협 인권위원회가 함께한다. 후원계좌 110-450-460811(신한은행 예금주 박용모)

박아름 기자



분단 아픔 치유할 평화의 법당 문열다

조계종 군종교구, 3월 31일 판문점에 무량수전 낙성



남북 분단의 아픔이 서려있는 판문점에 평화를 상징하는 법당이 문을 열었다.

조계종 군종교구(교구장 정우)는 3월 31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서 무량수전 낙성법회를 개최했다.〈사진 위〉

이날 법회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 군종교구장 정우 스님과 동국대 이사장 자광 스님, 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장 일면 스님, 이기흥 중앙신도회장 등 불교계 인사들과 군승, 이종화 육군1사단장, 박정이 예비역불자회장 등 군불자 600여 명이 참석했다.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법어에서 “최근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도발로 긴장감이 감도는 이곳 판문점에서 호국영령을 추모하고 한반도 평화와 남북통일을 염원하는 무량수전을 낙성하게 돼 뜻 깊다”고 말했다.

군종교구장 정우 스님은 “오늘의 불사는 수많은 인연들의 동참으로 이룰 수 있었다”고 고마움을 전하며 “평화의 종소리가 울리는 날을 위해 우리 함께 기도하자”고 당부했다.

육군1사단장 이종화 소장은 “무량수전 신축불사가 원만히 성취됐다. 대한민국의 최전방을 지키는 장병들이 이곳에서 불퇴전의 용맹정진으로 참불자가 돼 나라를 지키는 호법신장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낙성된 무량수전은 공동경비구역 안보견학관 옆에 자리해 있으며 82.32㎡(24.9평)의 규모다. 고려시대 양식인 수덕사 대웅전과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을 본떠 만들어졌다. 이와 함께 왼편에는 9㎡(2.72평)의 종각에 한반도 평화를 기원하는 6.25관의 ‘평화의종’이 조성됐다.

내부에는 아미타삼존불과 함께 한국전쟁 당시 참전한 16개국 전사자 위패와 국군장병 위패 등이 모셔져 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목포신항에 미수습자 수습 발원 기도법당 설치

조계종 사회노동위, 매일 독송 및 염불 기도 정진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혜용, 이하 사회노동위)는 세월호가 육상 거치되는 목포신항만에 미수습자 9명의 조기 수습을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담아 컨테이너 임시법당을 설치했다.〈사진〉 사회노동위는 이곳서 미수습자가 온전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발원하는 독송 및 염불 기도를 이어갈 예정이다.



임시법당은 사회노동위 수석 부위원장 도철스님과 양한웅 집행위원장이 상주하며 매일 1000배, 관세음보살 정근, 금강경 독송, 염불 등 기도를 진행한다. 또한 대흥사를 비롯한 목포 · 영암지역 사찰 스님들과 신도들도 기도에 동참할 계획이다.

4월 8일을 첫 번째 집중기도회를 시작으로 매주 토요일 ‘미수습자 온존수습을 위한 집중기도회’를 봉행하는 사회노동위는 기도 동참 불자를 모집한다. 매주 토요일 오전 8시 서울 조계사 앞에서 무료 운행 버스가 출발하며, 당일 오후 11시 서울 도착한다. (02)2011-1822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